

어도비와 매크로미디어의 엇갈린 진술(?)

기업들의 고도 경영전략중 하나인 M&A는 새로운 성장엔진이 된다는 점에서 더없이 매력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외형 통합에 나서거나, M&A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요소를 유연하게 풀어내지 못한 기업들은 오히려 도태되기도 한다. 기업들에게 M&A는 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동전의 양면' 인 셈이다.

IT 업계의 M&A로는 지난 2002년 HP가 컴팩을 품에 안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당시 세계 IT시장을 술렁거리게 했던 양사의 통합은 실제로 관련 업계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M&A를 통해 등장한 통합HP가 업계 부동의 1위인 IBM을 크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부상했고 실제 일부 사업 부문에서는 IBM을 압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요즘, HP는 다소 힘에 부친 모습이다. 통합의 주역이었던 칼리 피오리나 회장이 경영 부진을 이유로 낙마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사를 포함, 전세계 지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던 것.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통합 시너지 효과를 잘못 예측한데 따른 예정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질적인 조직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에서 HP도 자유롭지 못했다.

올해에도 IT 업계에서는 굵직굵직한 M&A가 이어졌다. 이를 DC 분야로만 좁혀보면 어도비시스템즈가 매크로미디어를 인수키로 한 것이 첫손에 꼽힌다. 양사의 통합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세계 표준이자 기반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PDF'와 '플래시'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 그러나 최근 양사의 모습을 보면 왠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6월 플래시 신제품 발표 차 내한한 탐 헤일 매크로미디어 수석부사장은 "기술 통합은 인적·물적 통합 이후에나 가능한 문제로 현 단계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며 기술 통합 논의를 일축했다. 반면 헤일 부사장에 이어 며칠 뒤 방한한 유진 리 어도비시스템즈 부사장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TF팀이 꾸려져 기술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방한한 양사의 중역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이들이 본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양사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비약하자면 통합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이 매크로미디어 관계자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통합은 어느 업체 일방이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기술통합 논의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상이한 환경에 처해있던 조직들이 통합되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과정은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엇박자는 일면 '하나'가 되기 위한 '진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도비와 매크로미디어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통합을 목전에 둔, 그래서 더욱 세심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나온 이들의 엇박자는 분명 사소한 문제로 볼 수 없다. 그것도 양사가 한술밥을 먹게 된 배경인 기술 통합에 대한 내용 아니던가. 양사의 통합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통합 이후가 우려되는 기자의 생각이 단지 기우에 그치지길 바랄뿐이다.

글 양기석 기자